

바다 가로질러 섬으로 활강 창원 짚트랙 개장



국내에서 가장 긴 쇠줄을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활강하는 시설인 경남 창원 짚트랙이 최근 개장했다. 고층 타워 외벽을 걷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짚트랙은 국내 최고 높이(99m)인 '구구타워'와 해상 최장 거리(1.4km)의 짚트랙 체험시설, 제트보트 운행 코스, 그리고 구구타워의 외벽을 걷는 옛지워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해해양공원 음지도에서 소쿠리섬까지 잇는 짚트랙은 음지도에 세운 99m 높이 타워에서 약 1.4km 소쿠리섬까지 쇠줄을 타고 짜릿함을 1분여간 만끽할 수 있다.

길이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긴 1천399m이다. 총 6개 라인으로 돼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다. 쇠줄에 연결된 와이어

와 안전고리에 몸을 맡기면 시속 80km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한다. 스틸 넘치는 활강 후에는 최대 시속 70km 속도의 제트보트를 타고 출발지로 돌아온다.

모서리를 걷는다는 뜻을 담은 옛지워크도 문을 열었다. 와이어에 의존해 94m 높이에서 타워의 외벽 둘레 62m를 걸을 수 있다.

창원 짚트랙은 창원시가 새로운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치한 민간사업이다. 구구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수려한 해양 경관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스틸을 제공하는 해양 복합 레저시설로서 앞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명소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주권시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정철학, 빛나는 땅 창원의 새 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 시민과 함께 새로운 창원을 열겠습니다 ”

